

大學生 生活指導, 教授가 외면해서야

金 忠 起
(建國大 教育學科)

흔히 대학교수의 기능을 教授(teaching), 研究(research), 社會奉仕(social service)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수의 기능으로 學生指導(guidance)의 기능을 더 첨가함으로써 교수는 4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이 전통적인 대학교수의 3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을 줄 믿는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지도의 기능까지 첨가한다면 교수가 敎師냐고 반문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敎授도 學者이기 이전에 교육자임을 들림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자이고 교수는 학자라고 굳이 역할을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교수도 피교육자인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교수도 당연히 교육자이어야 하고 동시에 학자로서 주어진 전공 분야의 학문을 전달하고 탐구하며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수의 역할이나 기능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마땅히 변화되어야 한다. 본래 대학의 사명은 진리 탐구로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요 상아탑적인 존재였다. 그것은 바로 대학이 소수 엘리트 양성의 본고장으로서 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나 학자를 기르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삼았던 18세기 고전주의적 전통 속에서의 이념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대학교육이 점차적으로 엘리트 양성 교육이란 개념에서 벗어나

마틴 트로우의 말과 같이 대중화·보편화 교육으로 변천되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 사회 속에서의 대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의 道場이라기보다는 대중화 교육의 추세에 따라 보편적인 직업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교육이 단순 기능공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넓은 의미의 직업 교육으로서의 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4년간의 전공 분야와 기초 교육, 교양교육을 받은 후 졸업을 하면 대부분이 일생의 생활 유지 수단인 직업을 찾아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즉, 취업을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연마시켜, 장차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때 그동안 배운 전문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대학이 단순히 진리 탐구나 학문의 연구에만 치중하여 모두를 학자로 양성한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잃고 있다. 학문의 길은 대학원 이상의 학구적인 연마 속에서 해당된 전공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은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문직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이 복잡한 산업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체나 산업 기관, 정부 기관 등의 직장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현장에서 쉽사리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체나 산업체 나름대로 연수 계획을 세워 적응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社內研修 등으로 기업체 별도의 예산 지원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학교육과 産業體의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는 등의 비난을 산업체로부터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산업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産學協同 지원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체제의 결여는 현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기능이 과거의 전통적 기능만을 固守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의 기능도 산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처장도 생활 지도 전문가로 임명되고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많은 생활 지도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 즉, 학생 지도가 생활 지도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학생 지도 현황은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나 학교 당국의 운영 방침이 선진국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의식 구조나 사고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은 생활 지도 전문가도 많지 않고 학생 생활 연구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力不足이다.

왜냐하면 현재 형식적으로 대학생 지도를 위한 기구로서 학생 생활 지도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나 생활 지도에 대한 비전문가가 연구소의

補職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지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록 생활 지도 전문가가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지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 또한 학생의 수에 비하여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학생 상담이나 생활 지도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가 없으며 학생 생활 지도 연구소의 역할만으로는 전체 학생의 지도를 전문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 생활 지도 연구소의 역할이나 기능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잘 이용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 지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대학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각 나라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학생 지도의 형태도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남의 것을 좇아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특수성에 알맞게 외국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조절하고 선택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교수의 역할 가운데 하나를 더 첨가해서 학생 지도의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생 지도를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래 교수들에게는 분담 지도교수라는 명칭 아래 학생 지도의 기능이 부여되고 전공 분야의 학생에 대해 개별적인 相談을 통하여 문제점을 의논하고 함께 걱정도 해주면서 학업이나 과외 활동, 진로 및 적응상의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도와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당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학생들을 호출해서 기계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個中에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에 바쁘다는 핑계나 구실을 내세워 학생들과의 대화를 성의껏 해주지 못하는 교수도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학생들도 교수와의 대화를 꺼려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담 지도교수제가 학생 지도의 필요에서 자발적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他意에 의한 半強制的, 指示的인 擔任先生의 역할로서 대학생의 소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진정한 필요에서 생겨났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이나, 그것이 와전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만남의 장소이다. 교육은 훌륭한 인격과 인품, 학식을 소유한 교수와 학생의 격의 없는 진실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교수들과 가깝게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인생을 깊이 있게 논하고 생의 의미를 탐색하고 학문을 토론하며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수에게 등을 돌리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쳐 우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며 근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화는 受容과 理解, 親切과 共感, 信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수들이 현학적인 자세로 도도한 위치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허심탄회하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한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만 몰두하면 되는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생활 지도는 자신의 책임 밖의 것으로 착각하는 교수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생이 전공 학문만 익히면 그것

으로서 대학은 사명을 다한 것이지 중·고등학교처럼 일일이 간섭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등의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청소년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대학생의 발달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하여 대학에서의 생활 지도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아직도 종속적인 피교육자임에 틀림없다. 아직도 독립적으로 사리를 판단하고 학문 연구나 미래의 진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갈 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들은 학창 생활을 통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교수의 인간미 있는 꾸준한 사랑과 열성, 포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허물 없는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문제는 스스로 풀려질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실제로 지켜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도 이제 대중 교육인 이상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만남의 광장을 보다 성숙되게 이루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학생 생활 지도의 책임을 몸소 느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들은 기본 교양으로서 학생 지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對話의 技法 또는 相談의 基本原理나 方法 등에 능통할 수 있는 소양을 쌓아야 될 줄로 믿는다.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에 이은 고도 기술 사회로의 진입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거대한 변혁으로 우리들을 몰아 가고 있다.

복잡다단한 산업 사회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학문적 적응,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회적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에 관한 문제 해결에 반려자가 되어 주어 요구를 포용하고 진정한 토론과 대화가 솔직하게 전개된다면 문제의 실마리는

